

전남대 자기소개서

1. 모집단위 지원동기 및 모집단위에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했는지를 교내·외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최초의 유인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척추입니다. 척추로 인해 인류는 직립 보행을 하게 되었고 농업 혁명, 산업 혁명, 그리고 정보화 혁명을 거쳐 현 21세기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형의 전공 서적을 여러번 들여다보며 저는 이렇게 인간 생활에 있어 크나큰 구심점이 되었던 척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신문 기사에서 등이 165도 휜 척추기형환자를 절골술과 인공 관절 치환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교정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지만 자국의 의료 기술로 뛰어난 의학적 성과를 일궈낸 이 사례를 보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척추 측만증과 같은 여러 만성 척추 질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의술을 개발하여 한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계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며 평소에는 끊임없는 학업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의사가 되어 다양한 지식들을 축적할 기반을 닦았고 척추와 관련된 여러 전공 서적을 접하며 세계 정형외과계의 업적과 동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방학과 같이 시간이 날 때에는 인근의 노인 요양 병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 관심과 염려, 희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우월 의식이 아닌 따뜻한 인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굳은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국내 의료계의 발전에 꼭 기여하고 싶습니다.

2. 스스로 학업 목표를 세우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동기와 과정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중학교 때 배운 '생물' 과목과 많이 연계되는 '고1 생물' 과목의 특성상 생물 분야를 좋아하던 저로서는 기본 상식에 의존해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생물' 교과가 인체 의학을 주로 다루는 '생물1'로 심화되자 그에 익숙지 않았던 저는 암기식 공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생물'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생물1'에서 50점 만점에 26점의 점수를 받고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기존의 암기식 공부법의 한계를 깨닫고 '생물' 교과의 특성에 맞는 공부법을 통해 생물 성적을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생물1'은 인체 의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x축, y축 변량값을 이용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많았습니다. 이를 정복하기 위해 문제에 그래프가 주어지면 우선 x축과 y축에 어떠한 변량값이 주어졌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변량값을 바탕으로 그래프가 인체 내의 어떠한 메커니즘을 나타내고 그러한 메커니즘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프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어진 변량값을 다른 변량값으로 바꾸어 그래프가 어떠한 개형으로 바뀔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주어진 변량값에 따라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는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통해 '생물' 과목에 대한 흥미를 되찾게 되었고 '생물'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어 6월 모